



즉시 배포용: 2022년 7월 8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모바일 스포츠 베팅 세수가 뉴욕주 기록 경신했다고 발표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뉴욕주는 모바일 스포츠 베팅 세수 3억 230만 달러를 징수하여
예상을 초과하여 주정부 중 가장 많은 세수를 징수**

**뉴욕에서 모바일 스포츠 베팅 서비스를 운영하는 최종 9번째 사업자인 밸리 벳이 운영
시작**

**세수는 교육,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보조금, 도박 중독 문제 예방 치료, 회복 서비스
등에 재투자**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 모바일 스포츠 베팅 프로그램이 시행 6개월 만에 다른 모든 주정부의 세수액을 초과했을 뿐 아니라, 예산국(Division of the Budget)의 2022 회계연도 세수 예산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데이터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2022년 1월 8일부터 발생한 모바일 스포츠 베팅 관련 세수는 3억 200만 달러입니다. 모든 수익은 교육 보조금, 청소년 스포츠, 책임감 있는 베팅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뉴욕주에서 최종 9번째 운영자인 밸리 벳(Bally Bet)이 7월 7일 베팅 사업 운영자 승인을 취득하여 엠파이어 스테이트(Empire State)에서 주정부의 관리를 받는 베팅 산업 운영 체제가 완비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뉴욕은 성공적인 게임 정책을 시행한 선도적인 주가 되었습니다. 수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중요한 프로그램에 지급되어 모든 뉴욕 주민의 삶을 개선할 것입니다. 뉴욕의 마지막 스포츠 베팅 운영자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교육,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도박 문제 해결 지원 등에 사용할 재원이 확보될 것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스포츠 베팅을 즐길 수 있는 연령의 모든 뉴욕 주민들이 즐거운 레크리에이션을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호 조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은 6개월간 모바일과 현장을 포함한 총 스포츠 베팅 세수로 지난 몇 년간에서 다른 주에서 징수한 총 세수액보다 많은 금액을 징수했습니다. 2022년 5월 기준, 펜실베이니아는 2018년 11월부터 2억 6,560만 달러, 뉴저지는 2018년 6월부터 2억 3,710만 달러를 스포츠 베팅에서 징수했습니다.

1월 뉴욕주는 모바일 스포츠 베팅 세수가 2022 회계연도에 2억 4,900만 달러(이미 징수한 허가 수수료 2억 달러 포함)에 이르는 한편, 총 징수액은 3억 6,100만 달러(허가 수수료 2억 달러 포함)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월 기준, 뉴욕주는 라이선스 수수료 징수액이 2023 회계연도 3억 5,700만 달러, 2024 회계연도에 4억 6,500만 달러, 2025 회계연도에 4억 9,300만 달러, 2026 회계연도에 5억 900만 달러, 2027 회계연도에 5억 1,8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obert Williams 뉴욕주 게임 위원회(New York State Gaming Commission)

사무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의 리더십 덕분에 뉴욕주는 6개월 만에 스포츠 베팅의 선도주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경과 모두 뉴욕의 모델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모델은 스포츠 베팅의 흥미와 잠재력을 최대한 이용합니다."

모바일 스포츠 베팅의 등장하자 뉴욕주 게임 위원회, 파트너인 책임감 있는 경기 파트너십(Responsible Play Partnership), 게임 업계는 함께 적극적인 정보성 행자와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책임감 있는 베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Chinazo Cunningham 뉴욕주 중독 서비스 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수를 활용해 도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유해한 효과를 예방, 치료, 경감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추가 지원금을 활용해 OASAS는 도박 문제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뉴욕주 모든 지역에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스크리닝 및 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뉴욕에서 모바일 스포츠 베팅 산업이 창출한 세수는 초·중등교육,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래밍 보조금, 문제성 도박 예방, 치료 및 복구 서비스 등에 재투자됩니다. 또한 주정부는 여덟 곳의 스포츠 베팅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2,500만 달러의 등록비를 징수하여 주정부 총 징수액은 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모든 등록비 수입은 교육 분야에 지원되었습니다.

Joseph P. Addabbo, Jr.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단 6개월 만에 이미 모바일 스포츠 베팅 부문에서 모든 경쟁자를 제치면서 예상을 뛰어 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굳건한 뉴욕의 팬베이스에 헌신적인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고품질 모바일 베팅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앱을 활용해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빨리 벳이 이제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성장하는 시장에서 경쟁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규제를 받는 뉴욕의 모바일 스포츠 베팅 산업의 성공을 통해 주민들은 안전하게 베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뉴욕이 교육,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게임 중독 인식 제고 및 지원에 더욱 많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Gary Pretlow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안으로 모바일 스포츠 베팅(Mobile Sports Betting) 계획을 마련할 때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뉴저지의 정책을

검토한 결과, 저는 그들이 성공을 거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뉴욕 주민의 참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욱 많은 세수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뉴욕이 미국에서 가장 큰 베팅 마켓이 될 기회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육, 청소년 교육, 도박 문제에 대한 자금 증액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커다란 승리입니다."

스포츠 북에서 지리 위치 요구 사항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인 지오컴플라이(GeoComply)에 따르면, 290만 명 이상의 고유 플레이어 계정이 1월부터 만들어져 7억 700만 건 이상의 거래가 실시되었습니다.

회계연도 2023 이후 매년 모바일 스포츠 베팅 관련 수익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소외 계층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 500만 달러, 게임 교육 및 치료에 대한 자금 600만 달러, 기타 대부분 자금은 교육 보조금에 사용됩니다.

매주 금요일, 뉴욕주 게임 위원회는 모든 운영자로부터 수집한 결과인 주간 모바일 스포츠 베팅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공개합니다.

게임 위원회 규정은 운영업체에게 미성년자 게임 예방, 베테에게 지출 한도를 부여하는 가용성, 도박에 따른 위험성 및 문제성 도박 징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의무화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는 뉴욕 주민 또는 주변에 도박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는 뉴욕 주민들은 주 정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HOPEline에 1-877-8-HOPENY (1-877-846-7369)로 전화하거나 HOPENY (467369) 문자를 보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주민은 또한 지역 도박 문제 자원 센터(Regional Problem Gambling Resource Cente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https://nyproblemgamblinghelp.org/>.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